

순창군 복지사업 성과 눈길

복지예산 2013년 123만원 → 올해 1월 175만 8천원 43% 증가

순창군민 1인당 복지예산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복지 수준이 크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1월 기준 1인당 복지예산이 175만 8천원으로 2013년 123만원에서 약 43%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총액은 2013년 372억원에서 522억원으로 15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특히 순창군의 복지예산은 아이들부터 노인세대까지 다양한 복지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전 연령층의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단순 양적인 부분만 아니라 순창군은 최근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순창군민 1인당 복지예산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복지 수준이 크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당첨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 눈길을 끈다. 농촌 경로당이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고령노인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노인층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77개 마을에 7억 2천 만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응급 안전망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최근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175.7㎡ 규모로 문화의 집 1층에 문을 열었다. 유아의 성장에 맞춘 다양한 장난감 335종 988여점이 비치 돼 있으며 역할 놀이실, 북가게 등도 갖춰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군은 또 최근 복흥 공립 성가정 어

린이집을 개원해 복지지역 보육환경을 높이고 아동수당 지급,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의 성장과 함께 복지수준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살뜰히 돌보고 있다"면서 "지역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 가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4개 분야 25개 종목 구성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지난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화주 남원시장과 안숙선 제전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춘향제전위원, 시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8회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제88회 춘향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며, 전통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놀이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춘향제 주제는 '재·감·통 춘향제'로 전통과 역사를 융합해 춘향제 특유의 대표 공연예술제로서의 위

상을 드높이고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성과 고유성을 강화,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재미와 감동,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춘향제 상설육성사업인 춘향놀이마루(시민윈드오케스트라, 청소년 날라리예술단, 국악예술단 여민락, 청소년 드러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춘향 길놀이 및 이관사 관혼판 등 축제형 놀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 축제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축제 공간 변화로는 관현루원과 요천둔치를 연계한 효과적인 축제장 등

선 구축을 위해 관현루원에는 대표공연예술제, 춘향산발대회, 춘향시대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고, 완월정 누각 및 주변 거목을 배경으로 극장식 예술무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춘향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지난해 2년 연속 전통분야 전국 1위 축제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통예술축제의 위상을 선보였다. 안숙선 제전위원장은 "전통 국악의 원형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의 근본을 잃지 않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모두가 동참하는 지역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새로운 변화, 살기좋은 임실'

심 민 군수, "중앙공모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 민 임실군수가 '새로운 변화, 살기좋은 임실'을 기치로 한 민선 6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강조하며, 중앙공모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또한 해빙기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의 대대적인 전개와 불철 산불예방, 신속한 사업집행, 철저한 영농준비 등을 전 직원에게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청원조회에서 심 군수는 "민생현장방문, 임신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AI 특별방역 활동 등 각종 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드린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실과원장, 읍면장 및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원조회에서 심 군수는 "올해는 민선 6기가 완성되는 해로서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며 "민선 6기 주민과 약속했던 공약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 영농지원으로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민방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계적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주력할 것과 중앙공모사업 발굴에 능동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로서 최근 새롭게 개편된 임실군청 페이스북 등을 잘 활용해 우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청원조회에서는 모범이장, 새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등 표창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청원조회 후에는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란 주제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6.13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추진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지대별 적기 공급 추진

남원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부족 해소 및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고 건묘육성과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산간부·중평야부 등 지대별로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내의 전체 벼 재배면적에 소요되는 육묘용 상토를 유형별로 정해진 액수를 보조하여 전 농가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49만3,695포의 1만6천톤을 신청 받아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으로 결정하여 2월 하순부터 각 읍·면·동 농가 및 공동육묘장에 공급을 시작으로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벼 육묘용상토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되며 사업 농가의 희망 상토 유형에 따라 경량,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트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보건소, 여행시 예방수칙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자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고, 이 중 74.8%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음료음료수 마시기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동계면민회 김광욱 전 회장 노래교실 성공 전달 '훈'

동계면 석산마을 김광욱(81) 전 동계면민회장이 최근 동계면 주민자치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250만원을 지원해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지원금은 동계면 주민자치 노래교실 회원들이 단복을 사는데 쓰여 질 계획이다. 김광욱 전 면민회장은 평소 근절절을 생활신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마다 동계면민회 기금조성과 동계 중·고등학교 도서증정·장학금 지급 등 동계면 인재양성을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고향후배들에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등 많은 활동과 선행을 베풀었고, 석산마을 모정 건립자금 지원, 재경동계면향우회에 본인이 직접 재배 수확한 배추 등을 매년 기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반 '인기몰리'

순창군이 추진하는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반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격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소형중장비 교육에 13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령화와 농업환경의 기계화로 농업에서의 소형 중장비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군이 추진하는 자격증 취득반이다. 소형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학원에 위탁 1박 2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농가들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방법 및 운전조작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실시해서 더욱 호응을 얻었다. 3월중에는 중장비 학원에 위탁 실습 교육을 실시 120명의 농가가 소형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2016년부터 소형 중장비 자격 취득반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19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는 소형 굴삭기 5대를 확보해 전년도까지 자격증 취득 농가를 대상으로 206회 344농가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포장 배수로 정비, 농작물 굴취 작업 등 영농현장에서 활용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각 읍면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기계 및 작업기의 작동요령 등 올바른 사용방법과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